

# 朝鮮時代 巫俗服飾研究

- 巫堂 來歷을 中心으로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 조 아 란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수 조 효 순

## 目 次

I. 序 論	2. 굿의 基本構成과 種類
1. 研究目的 및 研究 方法	3. 12거리에 따른 무속복식
II. 巫俗의 起源과 傳承過程	4. 巫俗服飾의 特性
1. 巫俗의 起源과 由來	5. 巫俗도구
2. 巫俗의 傳承過程	IV. 結 論
III. 巫俗(굿)에 나타난 巫俗服飾	참고문헌
1. 巫人의 別稱과 類型	ABSTRACT

## I. 序 論

### 1. 研究 目的, 研究 方法

우리사회에서 巫俗은 바로 迷信이라는 固定觀念과, 이러한 迷信的 요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니 하루속히 打破해야만 우리 나라가 근대화 할 수 있다는 식의 主張을 해왔다. 그러나 자연적 원시종교로 우리들 民間生活과 밀착되어온 巫俗을 迷信의인 것으로만 보아 버리기에 너무나 많은 文化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巫俗의 중요한 요건인 巫의 儀式 즉 ‘굿’을 보더라도 그것은 歌, 樂, 舞, 劇, 巫具와 巫依, 그리고 古卜과 神託과

娛樂이 結들여있다. 그러므로 巫俗研究는 우리문화의 연구의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朝鮮時代 巫俗服飾을 연구함에 있어서 文獻과 遺物研究가 병행되어야 하겠으나 朝鮮時代는 본격적인 儒敎國家로 상세한 巫俗의 기록도 영성할 뿐만이 아니라, 巫堂이 죽으면 巫服도 태워버리거나 함께 묻어 버리므로 朝鮮時代 巫俗服飾의 遺物은 全無한 상태이므로 부득이 本 論文에서는 文獻에 나타난 자료와 先行研究에 의존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朝鮮時代 굿에 따른 巫俗服飾의 種類와 特徵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巫堂來歷<sup>1)</sup>과 巫堂城主祈禱圖<sup>2)</sup> 그리고 朴瑛周의 韓國巫俗服飾研究<sup>3)</sup> 등을 研究資料로 하여 巫俗의 起源과 傳承過程,

1) 巫堂來歷, 서울 大學校 圖書館 奎章閣 所藏  
 2) 巫堂城主祈禱圖, 서울大學校 博物館 所藏  
 3) 朴瑛周, 韓國巫俗服飾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그림 1〉 무녀도 (신윤복)



〈그림 2〉 무녀도 (무당내력)

巫覡의 別稱과 類型, 굿의 基本構造와 種類, 12巨里에 따른 巫俗服飾, 巫俗服飾의 特性和 種類, 巫俗道具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巫堂來歷과 巫堂城主祈禱圖의 화가의 주관적 표현방법과 다양한 문헌의 부족에 따른 제한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무속복식연구가 한국무속복식의 올바른 계승에 기여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 II. 巫俗의 起源과 傳承過程

무속의 기원에 관하여《巫堂來歷》이라는 책에 보면 “태초에 시월 삼일 神人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 내려와 神敎를 만들어 이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니 이를 始祖檀君이라 하고 그의 큰아들 扶 (부누)는 단을 쌓고 토기에 곡식을 넣고 짚을 엮어 扶樓檀地 또는 業主嘉利를 만들고 老婆로 하여금 祭를 지내게 하였으니 이를 巫女 또는 巫堂이라 일컫게 되었다<sup>4)</sup>.”

이당시 민간에서는 무속을 神敎라고도 하였으며 그 神敎의 起源을 檀君神話에서 찾고 있는데 李能和도 같은 견해이다<sup>5)</sup>. 즉 단군신화에는 단군이 天神인 桓因과 地神인 熊女사이에서 태어나 風, 雨, 雲, 穀物, 인간의 壽命, 질병, 刑罰, 善惡까

지 담당하는 우주와 人間을 다스리는 하나의 샤먼(Shaman)이라고 하였다<sup>6)</sup>.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무속을 인류의 역사와 함께 탄생한 原始信仰이라고 보는 견해는 많은데 朴柱弘도 마찬가지이다<sup>7)</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原始信仰을 현대에까지 존속되고 있는 巫俗의 原形으로 보는데 대해 任哲宰는 疑問을 제기하고 있다.

“李能化는 우리의 巫俗의 起源과 由來를 檀君神話의 記錄에 의하여 檀君이 마련한 神市에 두고, 그 후의 부족국가에서 연중행사로 지내는 東盟, 舞天, 迎鼓, 天君 등에 그 유풍이 계속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신시에 관한 기록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화적 서술이기 때문에 단군신화가 무속의 기원이라고 함에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데는 많은 실증이 있어야 하겠으며 제천사신의 發議는 무속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sup>8)</sup>.

우리나라의 巫俗은 檀君보다 훨씬 더 고대에 기원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任哲宰의 疑問에 대하여 金仁會는 다시 問題點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재 巫俗에서와 유사한 사신 행위가 다른 여러 민족에서도 발견되는데 그러한 행사들은 모두 巫俗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우리

4) 巫堂來歷, p. 1

5) 李能和, 朝鮮巫俗, 동문선, 1991, p. 10

6) 李內수譯註, 三國遺事, 동국문화사, 1965. p. 27

7) 朴柱弘, 近世巫覡의 社會的 機能에 대하여, 巫俗信仰, 교문사, 1989, p. 34.

8) 任哲宰, 韓國巫俗研究序說, 韓國民俗研究論文選(3) 일조각, 1992, p. 6.

나라에서 巫堂이 주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宗教儀禮를 중심으로한 宗教的 習俗을 우리는 巫俗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古代에 제천사신 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巫俗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任哲宰의 주장은 또한 제천사신이 바로 巫俗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한 논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sup>9)</sup>.

古代 完教儀禮에 대한 記錄의 片鱗들 속에 비치는 ‘祭天’이라는 표현이 과연 직접 천신을 祭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의 巫俗에서 보이는 祖上神이나 제석, 칠성, 오방신 같은 神들을 祭祀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표현한 것인지도 분명치않다.

이와같은 緣由로 우리 巫俗의 原形을 神敎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의 제천사신도 巫俗의 형태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 대부분이 불교, 유교 등의 외래종교가 수입되기 이전의 古代 韓國宗教를 오늘날의 巫俗의 原形으로 보는 경향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巫俗의 起源은 檀君神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제천사신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巫俗의 傳承過程

### 1) 上古時代

상고시대는 자연현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農耕社會에서는 자연에 대한 의지와 공포를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神話와 宗教的 儀禮가 탄생한 것이다.

制式에서 나타난 해우이의 본직은 多産의 豊饒를 祈願한 것이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가장 원시적 의식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잔존하는 巫俗에서 찾아볼 수 있다.

#### ① 餘

殷歷으로 正月에 祭天한다. 소를 죽여 그 발톱을 불으로써 吉凶을 점쳤으니 발톱이 갈라져 있으면 凶하고 합쳐있으면 吉하다<sup>10)</sup>.

祭天行事에는 연일 크게 모여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迎鼓라 한다<sup>11)</sup>.

나라의 왕은 海季節의 仲月에 하늘과 五帝의 神에게 祭祀를 지내고 또 해마다 네 번씩 그의 시조 仇台의 祠堂에 제사 드린다<sup>12)</sup>.

#### ② 灋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祭祀를 지내는데, 晝夜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舞天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神으로 여겨 祭祀지낸다<sup>13)</sup>.

#### ③ 馬韓

鬼神을 믿음으로 해마다 5월에 씨뿌리는 작업을 마친 뒤, 메지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神에게 祭祀를 지낸다. 10월에 이르러 秋收를 마친 뒤에도 역시 그렇게 한다. 國邑에는 각각 한 사람을 세워 天神에 대한 祭祀를 主率하게 하는데 그를 天君이라 부른다. 또 別邑을 설치하여 그 이름을 蘇塗라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을 매달고 북을 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 ④ 高句麗

鬼神, 社稷, 彗星에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며,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큰 모임이 있으니 그 이름을 東盟이라 한다<sup>14)</sup>.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公會 때의 의복도 모두 繡縫은 비단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였다<sup>15)</sup>.

“유리왕 19년 가을 亥豕가 도망가니 왕은 託利

9)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研究, 집문당, 1987, p. 33.

10) 三國志 魏志東夷傳 夫餘條

11)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12) 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上

13)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14)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15) 北史 卷94 列傳 第82.

와 斯卑로 하여금 뒤를 쫓게하여 長屋늪에서 잡자마자 칼로 다리를 끊었다. 9월에 왕이 병이 드니 무당이 말하기를 '託利와 斯卑가 들어서 병을 주었다.'고 하였다. 왕은 그를 시켜 사과케 하였더니 과연 병이 나왔다.

이외에도 많은 기록이 있는데 新羅本紀에서는 제2대의 왕, 南海의 칭호 자체가 巫堂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佛敎가 高句麗의 소수림왕 때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부딪힌 것은 우리 고유의 신앙체계인 무속의 저항이었을 것이다.

新羅의 이차돈의 순교의 기록도 불교 전래 150년 후 까지도 巫佛相爭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佛敎布敎者들은 神과 佛敎가 崇信하는 대상의 佛神과는 그 표현과 명칭이 다를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라는 소위 本地垂跡說을 내세워 巫의 司祭者인 巫堂에게 佛衣도 입혀 보고 용어도 풍부히 쓰게 하였던 것 같다. 오늘날 무속 가운데 불교적인 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 佛神名과 用言이 많이 삼입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結果라고 보아진다.

## 2) 高麗時代

高麗는 王建을 太祖로 하여 開國한 나라로 佛敎를 國敎로 한 佛敎文化國으로서 王權의 庇護아래 佛敎는 護國宗敎化, 貴族宗敎化해 갔다.

顯宗 12년 5월에 土龍을 南省뜰에 만들고 巫覡을 모아 비를 빌었다<sup>16)</sup>는 것이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 巫俗의 내용이다. 그 이후로 13대 宣宗祖 6년과 18년에 巫堂을 모아 비를 빌었다<sup>17)</sup>는 기록과 16대 睿宗祖에서도 巫女를 모아 비를 빌었다<sup>17)</sup>는 기록이 보인다.

17대 仁宗대에 巫人과 卜者가 왕의 병을 치료하였다는 기록과 忠宣王때 左政丞 姜融이 妹같이 귀족 출신 여자가 入巫했다<sup>18)</sup>는 기록도 나오고, 李能和는 이것이 이른바 毅宗代부터의 '仙官' 명칭이며, 이들은 민족적 대제전인 八關會를 주재했다고 한다. 이처럼 巫俗의 信仰體系는 高麗時代에 그 발달의 절정에 다다랐던 것 같다.

그러나 忠宣王妃의 어머니인 趙仁規의 妻는 巫를 시켜 公主를 詛呪하였다<sup>19)</sup>는 기록도 있다.

高麗史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 외에 高麗의 巫俗樣相을 간단하나마 추측하게 하는 時文이 한편 있다. 이것은 李奎報(1168~1241년)의 詩로서 巫俗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쪽의 이웃에 늙은 巫堂이 있어 날마다 많은 남녀들이 모이는데, 그 음란 노래와 괴상한 말들이 귀에 들린다. 내가 매우 불쾌하긴 하나 몰아낼 만한 이유가 없던 차인데, 마침 나라로부터 명령이 내려 모든 巫堂들로 하여금 멀리 옮겨가 서울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였다.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면 종신토록 잘못이 없을 것이나 妖怪한 짓으로 民衆을 미혹시킨다면 곧 그 자리에서 실패를 당하리니 이치가 본래 그런 것이다<sup>20)</sup>.”

우리의 巫俗은 적어도 이 詩가 쓰여진 12세기에는 오늘날에 보는 것과 같은 樣相의 巫俗의 信仰體系가 定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朝鮮時代

朝鮮은 儒敎理念 具現에서 中國이상으로 본격적인 儒敎國家였다. 건국후 法典 經國大典에서부터 民間信仰을 억압했고, 이러한 條文은 高宗代의 大典 會通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禁畵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歷代로 宮中好巫 기록들은 기록하고 있다.

16) 高麗史 世家 卷第4 顯宗.

17) 高麗史 世家 卷第14

18) 李能和, 앞글, p. 28.

19) 高麗史 卷105 列傳 卷18.

20) 李奎報, 東國李相國 考巫篇

太祖 2년 名山大川에 城隍을 쌓고 재를 지냈고 이어 太祖實錄에 八回, 太祖實錄에 五回, 世宗實錄에 五回의 재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다<sup>21)</sup>.

燕山君 8年(1502) 壬戌 6월 癸卯에 홍문관에서 啓하기를 '臣 등은 대궐에서 북 치는 소리를 듣고 시녀에게 가서 보게 했는데 4-5명의 巫女들이 東宮바깥 뜰에 앉아서 북을 치고 통소를 불면서 큰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臣등은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禁內에서 제사를 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합니다.' 했다.

宣祖 8년(1575)에 仁順王后가 病床에 들자, 요사스러운 巫堂이 禁中에 드나들면서 약은 쓰지 않고 기도와 환혹만을 일삼다가 드디어 大故를 당하게 되었다. 이 巫堂은 士人의 딸이며 宗室 堯卿의 妻였는데 삼사에서는 요경과 함께 다스리기를 청했다. 이에 조칙을 내려 무당을 옥에 가두고 국문 하여 다스렸다<sup>22)</sup>.

朝鮮末期에는 宮中에서 好巫하여 祭를 지낸 기록은 宮中儀式에 소용되는 物目과 件數를 적은 宮中 發起로도 알 수 있다. 明皇皇后는 高宗과 純宗의 壽命長壽와 祝福을 위하여 入道名山에 祈願하느라고 大院君이 10年동안 모은 國庫를 비게 만들었고 巫女에게 眞靈君과 賢靈君의 칭호까지 내려 주었다. 이처럼 巫俗의 盛行은 여러 가지 弊害도 따랐지만 끈질기게 생활을 지배하면서 繼承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 Ⅲ. 巫제(굿)에 나타난 巫俗服飾

#### 1. 巫人의 別稱과 類型

##### 1) 巫人의 別稱

設文에는 男子를 覡, 女子를 巫라고 하였으며 尙

書에는 歌舞로써 神을 섬긴 까닭에 歌舞가 巫覡의 風俗이 되었다고 하였다. 漢書의 義에는 王氏가 말하기를, 여자는 形體가 없는 것을 섬기며 춤을 추며 신을 내리는 것을 무라고 하였다. 또한 朱子語類에는 巫는 神明을 다하여 춤추는 사람이다. 巫人의 名稱은 地方에 따라, 性別에 따라 種類에 따라 다양하다.

여성이면 巫堂, 남성이면 博數라고 한다. 이 말은 우랄알타이어계의 女巫 udagan, 男巫 baksi들과 同系語라는 說<sup>23)</sup>이 있고, 또 女巫가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을 당이라 하여 女巫를 巫堂이라 부르며, 博士 혹은 卜師에서 尙전되어 男巫를 博數라 부른다는 設<sup>24)</sup>이 있다.

巫堂은 또한 제사지내지 않는 神이 없으므로 萬神이라 칭한다. 결국 巫堂은 諸神을 尙臨시켜, 入神 할 수 있는 神, 그 자체이므로 萬神이라는 稱號는 巫堂을 높여서 부르는 敬稱이다<sup>25)</sup>.

이 외에도 巫堂의 別稱으로 기자, 단골, 관수, 화랑, 재인, 신방, 당하님, 당소미, 소미, 여운님, 신득이, 일안어른 등이 있다.

#### 2) 巫人의 類型

巫堂은 굿을 할 수 있는 資格과 能力을 지닌 전문가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크게 두 종류의 巫堂이 있다. 降神巫와 世襲巫가 그것이다. 두 종류 모두 전문적인 학습을 거쳐서 巫堂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학습을 받는 자격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 (1) 降神巫

降神巫란 이른바 新病을 통해 神이 들린 사람이 巫堂을 만나 내림굿을 하고 巫業을 배워서 巫堂노릇을 하는 巫堂을 뜻한다.

降神巫가 되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단계

21) 太祖實錄, 卷四 二年 十二月條. 太宗實錄, 卷三十四 八年 十一月條. 世宗實錄.

22) 文獻備考, 李能化 朝鮮巫俗考, 동문선, 1991, p. 67.

23) Clark C.A., Religions of Old Korea, New York, 1929, p. 183.

24) 李能化, 앞글, pp. 13~14.

25) 李能化, 앞글, p. 370.

를 거쳐야 한다. 그 첫째가 神病이라고 부르는 병을 앓는 과정이고, 둘째는 그 神病을 고치기 위하여 최후의 방편으로 택하는 내림굿이다. 셋째는 내림굿을 해준 巫堂을 神어머니로 삼고 그에게서 무당노릇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오랜 세월을 걸쳐서 배우는 피나는 수련과정이다. 신들린 무당은 몸주대감을 모시는데 몸주대감은 가시적인 물질로 상징하여 둔다. 降神巫는 居宅내의 한 구석에 巫堂을 마련하고 巫神圖, 明圖, 巫衣 등을 안치하고 조석으로 치성을 드린다.

## (2) 世習巫

世習巫란 巫堂의 가계에서 태어나 巫業을 世習 받는 데서 나온 말이다. 世習巫들은 예외없이 巫堂의 家系出身들로서 巫堂의 아들인 巫樂전문가와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巫業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媼母인 巫堂에서 며느리로 巫業이 세습된다.

世習巫와 降神巫 사이에는 굿을 主祭하는 방법에서도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降神巫의 굿에서는 반드시공수가 포함된다<sup>26)</sup>. 그러나 世習巫의 경우는 이부분이 없다. 그 대신 神에게 인간의 소원을 고하는 부분과 神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이 降神巫의 경우보다 다양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世習巫의 굿에서는 神에게 바치는 노래와 춤과 놀이 등이 예술적으로 세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대신 降神巫의 굿은 巫服 치장이 화려하고 굿에 사용되는 巫具가 다양하며 神의 위력을 나타내는 연기와 기술, 예를들면 작두타기나 사실세움등으로 神聖性이 강조된다.

## 2. 굿의 基本 構造와 種類

### 1) 굿의 樣態

巫堂의 종류에 따라서 主祭하는 굿의 樣態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巫堂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降神巫는 神을 부르거나 神의 말을 할 때에 반드시 방울을 사용한다. 방울 이야말로 降神巫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降神巫의 굿에서는 神聖性이 강조되는데 비해 世習巫의 굿에서는 藝術性과 演技性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降神巫의 굿은 그 대신 世習巫의 굿보다 巫服 치장이 화려하고 굿에 사용되는 小道具가 다양하며 神의 위력을 나타내는 연기와 기술로 神聖性이 강조된다. 이러한 樣態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굿의 種類와 構造에는 전국적으로 차이가 없다.

### 2) 굿의 種類

神 또는 精靈과 교섭을 할 때에는 信奉者나 巫人은 儀禮를 통해서 하게되는데, 이 儀禮는 그 節次의 繁簡과 規模의 大小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儀禮節次, 규모의 大小와 機能에 따라서 정리하여 보면 비손, 푸닥거리와 고사 그리고 큰굿의 三種이 있다<sup>27)</sup>.

#### (1) 비손

이 儀禮는 行式의 節次가 단순하고 規模도 작고 짧은시간내에 信奉者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흔히 주부의 常用居室인 안방에서 행하게 되는데 이 儀禮를 행할때에는 안방의 옷목이나 방의 중앙에 깨끗한 食床을 놓고 그 위에 井華水를 한 사발 받쳐 놓고 그 앞에 巫女가 앉아서 손을 비비며 祈主가 소망하는 사항에 알맞는 祝福의 呪言을 올린다.

#### (2) 푸닥거리와 고사

푸닥거리와 고사는 비손보다 약간 규모가 크고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3~4시간을 요한다.

兩 儀禮를 行式하기에 앞서서 神主와 그 가족들은 특수 음식을 禁食하고 특수행동을 禁忌하고 行식장 내의를 청소정제하고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청정하기를 기한다.

26) 신의 자격으로 人間을 향해 말하는 부분을 '공수'라한다.

27) 任철쑥, 앞글, pp. 37~45.

출입통행을 금하고 祭床은 행식이 祈主의 거택 내의 경우에는 안방의 옷목이나 대청에다 배설한다. 그리고 부엌, 장독대, 뒷뜰, 우물 등 긴요한 처소에 약간의 음식물을 작은 상이나 바구니에 넣어서 놔둔다.

(3) 큰 굿

큰 굿의 의례는 무속의 祭儀禮중 최대의 규모와 가장 복잡한 요건을 갖추어 여러 절차절목을 이어가면서 행식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巫俗的인 모든 요건을 전부 총동원하게 되고 짧아도 2~3일, 길면 1주일 동안 주야에 걸쳐서 거행하게 된다.

그 기능, 목적, 주요절차 등으로 보면 死靈慰安 굿, 安宅 굿, 部樂祭, 그리고 손님굿의 4종으로 분류된다.

死靈慰安 굿은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굿이고 安宅은 개인의 사가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굿이며 部樂祭는 부락의 수호신을 위하여 행식하는 굿인데, 수호신의 加護에 의하여 부락민의 풍요와 재수와 건강과 평화를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손님굿은 小兒의 天然痘病을 치유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의례이다.

굿의 각 거리는 제각기 독립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진행은 기본적으로 神을 부르들여 人間의 所請을 고하고 신의 대답을 듣거나 신에게 인간의 소청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각종의 神占을 쳐서 알아본 후에 음악과 춤과 촌극 등으로 神과 인간들이 함께 즐기고 나서 神을 돌려 보내는 순서로 되어 있다.

대체로 기본 골자는 처음에 굿하는 장소를 淨化한다음 굿에 請할 여러 神들을 부르고, 家宅神, 地域守護神, 生産神, 祖上神, 등 각종의 神들이 차례로 등장한 후 마지막 부분에 가서 巫堂과 廣大들의 神(倡夫)이 초대된 후 雜神을 풀어 먹이는 절차가 끝나면 모든 신이 돌아갔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8)</sup>.

3. 12巨里에 따른 巫俗服飾

乙丑年 5月 明星皇后가 爲祝한 山嗜嶽(松嶽德物山) 발기에 기록된 각신당에 드린 굿의 거리명과 순서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sup>29)</sup>.

<표 1> 산기도박기의 굿의 거리명

고양반장	①부정
임진	①부정, ②감행, ③호구, ④제석, ⑤용왕, ⑥산신, ⑦사궁
장단	①금혼사, ②말명, ③호구, ④제석, ⑤산신, ⑥부정
감행당	①부정, ②감행, ③제석, ④성조, ⑤호구, ⑥청조, ⑦산신
월정당	①부정, ②성조, ③산신
대행당	①부정, ②대왕, ③성조, ④산신
숨당	①부정, ②성조, ③산신
정당	①부정, ②장군, ③성조, ④별군웅, ⑤왕신, ⑥님장군, ⑦산신, ⑧말명, ⑨뒤전, ⑩회정군
한우물	①부아들, ②감행, ③성조, ④군웅, ⑤물사슬, ⑥산신, ⑦뒤전
섯우물	①호구, ②제석
대국	①부정, ②성조, ③호구, ④산신, ⑤제석, ⑥득, ⑦뒤전
비각	①감행, ②호구, ③제석, ④산신, ⑤청군, ⑥부정, ⑦당단, ⑧말명, ⑨뒤전
떡물산	①부정, ②장군, ③금혼사, ④당자부인, ⑤국대부인, ⑥왕신, ⑦감행, ⑧호구, ⑨제석
	⑩ 세도영각, ⑪말명, ⑫청조, ⑬신신, ⑭마령, 뒷전

28) 김인희, 앞글, p. 204.

29) 崔吉城, 漢末 宮中巫俗, 民俗信仰, 교문사, 1989, p. 423.

큰곳은 대개 12巨里로 구성된 것이 원칙이나 실제 儀禮를 살펴보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

12거리의 순서에 따른 巫堂服飾을 巫堂來歷의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巫堂來歷과 巫堂域主祈禱圖에서도 곳의 거리명과 순서를 알 수 있다.

‘巫堂來歷’은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는 책으로 ‘乙酉仲春 蘭谷走然’이라는 落毅이 있어서, 대략 1885년이거나 1825년경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巫堂域主祈禱圖’는 서울대학교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巫堂來歷**

- \* ①감응정배, ②제석거리, ③별성거리, ④대거리, ⑤호구거리, ⑥조상거리, ⑦만신말명, ⑧축귀, ⑨창부거리, ⑩성조거리, ⑪구룡거리, ⑫뒋전

- \* ①부정거리, ②제석거리, ④호구거리, ⑤별성거리, ⑥감응거리, ⑦조사거리, ⑧만신말명, ⑨구룡거리, ⑩창부거리, ⑪축귀, ⑫뒋전

**巫堂域主祈禱圖**

- ①부정거리, ②산바라기, ③제석곳, ④대거리, ⑤대감놀이, ⑥별상곳, ⑦구룡곳, ⑧성주풀이, ⑨호구, ⑩창부거리, ⑪조상거리, ⑫뒋전

큰곳은 대개 12巨里로 구성된 것이 원칙이나 실제 儀禮를 살펴보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

12거리의 순서에 따른 巫堂服飾을 巫堂來歷의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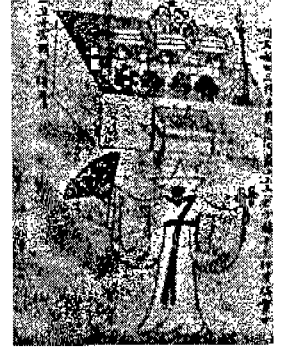


〈그림 3〉 무당성주기도도

1) 感應請陪 (산바라기)



〈그림 4〉 감응정배



〈그림 5〉 제석거리

“致誠을 드릴 때 巫女는 손에 白紙를 들고 태백산을 바라보고 ‘聖靈感應’이라고 세 번 외치는데 近日에는 崔將軍을 請部하니 실로 큰 잘못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巫女の 服飾은 엷은 머리에 속바지를 입은 것이 보이고 그 위에 노랑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으며, 다시 그 위에 녹색 장옷을 입고 주황색 鞋를 신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머리에 쓰던 장옷을 몸에 입은 것으로 보아 우리옷의 전통양식과는 상이점을 볼 수 있다.

巫具로는 양손에 白紙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呪文, 人名, 祈願를 써서 이를 불태워 없앤다.

2) 帝釋巨里

“檀君을 三神祭釋이라 하는데 高句麗 山上王이 아들이 없어 三神에 빌어 貴子를 얻은 후부터 生子發顯의 習俗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다.

巫堂의 服飾은 白色 고깔을 쓰고 白色 佛師 長衫을 입고 赤色 帶와 架裳를 둘렀다.

巫具로는 三神扇과 방울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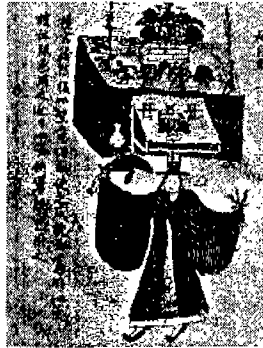
3) 別聖巨里

“檀君의 特臣 高失禮가 사람들에게 農事를 가르쳤으니 그 은혜를 잊지않고 檀君 請陪할 때 함께 부르는데 이를 別成이라 한다. 近來에는 巫女가 崔將軍을 請陪할 때 思悼世子를 함께 부르는데 이는 요령없는 이야기이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다.





<그림 6> 별성거리



<그림 7> 대거리

巫堂의 衣服은 붉은 색 술을 장식한 黑色 멩거지를 쓰고 노랑저고리에 녹색 치마를 입고 그 아래로 흰색 속바지가 보이며, 그 위에 홍색 소매를 단 주황색 동달이를 입고, 다시 그 위에 전복을 입고 남색 帶를 맸다. 신은 남색 靴를 신었다.

巫具로는 右手에 靑龍刀, 左手에는 三枝槍을 들고 있다.

#### 4) 大巨里

檀君請陪를 한 다음에 誠意에 의한 所願成就를 비는 것이라 한다. 원래 檀君 始祖의 補色을 사용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최장군의 服色을 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다.

巫堂의 服飾은 홍색 호수립을 쓰고, 주황색치마를 입고 밑에 흰색 속바지가 보이고, 그위에 남천립을 입고 홍색 대를 매고 초록색 혜를 신고 있다.

巫具로는 右手에 靑靈刀, 左手에 三枝槍을 들고 있다.

#### 5) 戶口巨里

天然痘神을 戶口라고 하며, 아직 앓지 않은 이가 있는 집에는 이 神을 모셔서 天然痘에 걸려도 순조롭게 낫게되기를 빈다. 近日에는 이神을 崔將軍의 딸이거나 첩이라고 하는데 이는 극히 妄設이다."라는 설명이 있다.

巫女の 服飾은 홍색 삼회장의 노랑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은 평상복차림에 홍색면사를 쓰고

있으며, 신은 남색 혜를 신고 있다.

巫具로는 三神扇과 방울을 들고 있다.

#### 6) 祖上巨里

“至誠을 드릴 대에 祖上神이 들어와서 後日의吉凶禍福을 豫報하고는 巫女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巫女の 服飾은 깃과 끝동은 자주색인 주황색 반회장 저고리에 녹색 치마를 입고 주황색 혜를 신은 평상복 차림이다.

巫具는 右手에 三神扇, 左手에 방울을 들고 있다.

#### 7) 만신말병

“巫女를 만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트블에서 巫女の 춤은 年攻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무당의 藝飮性을 나타낼수 있는 거리인 듯하다.

巫女の 服飾을 보면 쪽머리에 광수의 황색 몽두리를 착용하였는데 양쪽어깨에서 홍색의 삼각형 무늬가 6개씩 보이고, 어깨의 무늬와 같은 홍색의 대를 들렀다. 그리고 속에 흰색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남치마를 입었다. 신은 녹색 혜를 신었다.



<그림 8> 만신말병



<그림 9> 鬼

巫具는 三神扇과 방울을 들고 있다.

#### 8) 鬼

신장거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五色의 旗로서 五方神獎을 지휘하여 모든 雜鬼와 雜神을 쫓아

내어 厄을 물리친다. 근래에는 病을 고치기 위해서 旗를 사용한다고 한다.

巫堂의 衣服은 홍색소매의 주황색 등달이를 입고 있고 그 위에 전복을 입었다. 속에는 흰색 속바지와 연두색 치마를 입고 홍색의 회장이 달린 노랑저고리를 입고 있다. 머리는 초록색 술이 달린 남색 꽃과 붉은색 술장식을 한 흑색 병거지를 쓰고 있다. 신은 남색 혜를 신고 있다.

巫具로는 赤, 黃, 靑, 黑, 白의 五方色旗를 들고 있다.

9) 唱婦巨里

“巫女중 年少한 美者를 골라 一場의 遊戲를 하고 굿錢을 받아낸다. 근래 六十이 넘는 巫女들도 성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巫堂의 服飾은 흰색 속바지와 녹색 치마를 입고 남색의 회장이 달린 홍색 저고리를 입고 흑색 전복을 입었다. 머리는 초록색 술이 달린 남색 꽃과 붉은색 술장식을 한 흑색 병거지를 쓰고 있고 노란색 혜를 신었다.

巫具로는 노란색 긴 줄이 달린 三神扇을 들고 있다.

10) 成造 巨里

“檀君時代 每年 十月에 祭했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이 巨리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巫服은 흑립을 쓰고 연두색의 소매통이 좁은 소



<그림 10> 청부거리



<그림 11> 섬조거리

창의를 입고 속에 흰색속바지와 남치마를 입고 주황색 혜를 신었다.

巫具로는 三神扇과 방울을 들고 있다.

11) 구름

“明나라 때에는 使臣이 水路를 이용하여 왕래했기 때문에 무사하기를 비는 곳으로 白紙에 쓴 돈은 浮鬼에게 노자로 주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巫服은 홍색 호수립을 쓰고 홍치마에 홍천락을 착용하고 남전대를 둘렀고 신은 녹색 혜를 착용하였다.

巫具로는 노랑색 긴 끈이 달린 三神扇을 오른손



<그림 12> 구름



<그림 13> 뒷전

에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왼손에 들고 있다.

12) 뒷전

“굿이 끝나고 無明 雜鬼도 잘 먹여 보내는 巨里다. 언제부터 전해지는 習俗인지 알 수 없으나 오늘날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巫服은 쪽머리에 평상복 차림으로 흰색 속바지 위에 녹색 치마를 입고주황색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 주황색 띠를 맸고 주황색 혜를 신었다. 무구로는 양손에 북어를 들고 있다.

4. 巫俗服飾의 特性

1) 外形的 特性

무속에서의 신은 절대적이 아니라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무복을 착용함으로 조선시대의 무복은 전통복과 거의 동일한 형태와 착용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의 강림과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복과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다.

### (1) 着用方法

무속복식에서 장옷을 표의로 착용한 것을 무당 내력에 소개된 12거리중 감응청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세종 2년 梁誠之가 상소하기를 "나라안의 여자들이 長衣입기를 좋아하여 남자의 모양과 같고 어떤사람은 이를 의상사이에 입어 삼층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이 소위 服妖인 바 금하자<sup>30)</sup>." 이로 보아 무당뿐만이 아니라 부녀자들도 장옷을 내의용 쓰개로만 착용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두루마기와 같이 착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色彩

만신말병을 보면 황제가 착용할 수 있는 황색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당은 천인 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적인 특수성으로 속인들로부터 굿을 주재할 때에는 신격에 합당한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복색금제에서 이례적이었던 것 같다.

### (3) 形態

철릭,몽두리,장삼 등 대부분 조선시대 관복의 양식을 택하였으며 廣袖衣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신의정령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 2) 巫服의 象徵性

무당은 평범한 속의 의로는 신을 접할 수 없다. 신의 복을 착용할때 비로소 신은 무당과 접하는 것이다. 무인의 무복은 그 자체로서 종교적인 허에로파니(hierophany: 거룩한 것의 드러남, 곧 성현)와 코스모그래피(cosmography)를 이룬다. 무

복은 거룩한 것의 입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상징과 형이상학적 道程을 계시하기도 한다. 무당은 俗의 의상, 즉 평상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접신체험을 하지 않는다. 무복은 무당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주위의 세계와는 다른 종교적인 소우주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무복을 입는 것을 통해서 무당은 속계를 넘어 영계와 접촉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무당들은 접신 할 때 그 신의 格에 합당한 신복으로 갖추어 입고 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거리마다 무복이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제석거리에서의 불사장삼에 흰색의 고깔을 쓴 모습은 자손의 수명장수나 건강을 지켜주는 불교적인 신의 상징이기 때문이고, 오방장신을 모시든 신장거리의 무복은 구군복차림인데, 이는 오방장신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위를 수장하는 신으로 이 신들은 오방위의 모든 잡귀와 잡신을 쫓아내어 액을물리쳐 주는 신이기 때문이다. 호구거리에는 綿絲를 쓰고 있는데 이는 천연두신을 상징하게 하는 것이다. 한 번 천연두에 걸리면 얼굴이 없어 보기 흉하게 되므로 얽은 얼굴을 감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무당이 굿을 할 때에는 자신들의 신분계급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신의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며 神의 신분은 天上의 신분이 아닌 현실세계, 즉 人間으로서의 신분이다.

## 3) 무복에 나타난 陰陽五行思想

음양오행사상은 고대 중국 최초의 자연철학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을 모델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음양은 우주의 두 원리인 陽(햇볕)과 陰(그늘) 또는 원동력으로 풀이 되어 陽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 더위, 밝음, 건조, 견고성 등을 나타내고, 陰은 여성적인 것, 수동적, 추위, 어두

30) 世宗實錄 三年 三月條.

31) M.Eliade, 샤머니즘, 도서출판까치, 1992, pp. 148~149.

32) 馮友蘭, 中國哲學史, 鄭仁在 譯, 형설출판사, 1979, p. 193.

음, 습기 유연성 등을 뜻하게 되었다<sup>31)32)</sup>.

陰陽說에 의하면 天地間에는 만물에 氣가 있고 기란 정령을 말하며 陽氣의 精靈은 魂이라 하고 음기의 정령은 魄이라 한다. 죽음이란 사실은 양기의 浮散, 昇天을 의미한다<sup>33)</sup>.

음기의 魄神은 인간생활에 재화를 가져오는데, 귀신은 음성인 까닭에 무당의 성이 비록남성일지라도 꼭 女裝을 한다.

이유는 신의 성격이 음성이므로 여성의차림을 하여 음신이 강신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라고 본다.

五行은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가지 원소 또는 만물의 다섯가지 정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신적, 물리적, 우주의 모든 존재를 '다섯'의 구성으로 보려는 이 오행설은 색채와 방위등 우주의 모든 개념을 다섯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五行思想이 가장 잘 나타난 거리로는 신장거리를 들 수 있다. 신장거리에서 사용하는 오방색 기는 赤(南), 黃(中央), 靑(東), 白(西), 黑(北)색의 기로써 오방위의 신장을 지휘하여 잡신과 잡귀를 물리치는 거리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굿거리에서 착용하고 있는 기본복식인 저고리와 치마는 음양오행설에 근본을 둔 오방정색과 間色을 기초로한 복색을 그대로 따랐다<sup>34)</sup>.

## 6. 巫俗道具

### 1) 三枝槍

창끝이 세갈래로 갈라진 창이다. 별성거리에 쓰며 청룡도와 같이 사슬을 세우는데도 사용한다.

### 2) 斫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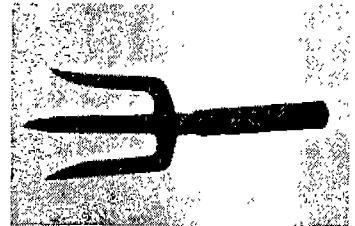
작도는 여물을 썰는 칼이다. 아래위 암숫이 있어서 밑에 날과 위의날이 가위처럼 마주쳐서 썰

어진다. 무당이 맨발로 타는 작도는 우물정자(井)가 있고 두이자(二)작도가 있고 또한 일자(일)의 작도가 있다. 무당이 작도를 타는 것은 신성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행사이다.

### 3) 神刀

두자루 한쌍으로 되어 있는데 청룡도와 같이 한 개인 경우도 있다. 청룡도는 삼국지 관운장이 잘 썼다는 달과 같이 생긴 검으로 자루가 길고 크다. 달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언월도라고도 한다.

그리고 북쪽지방에선 긴 칼은 칠성도라 하고 짧은 칼은 신장 검이라 한다. 대개 무당이 신칼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은 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祭壇에 세워서 신의 뜻을 점치고, 때로는 신칼, 신창으로 병자의 신체를 자르거나 찌르므로써 병마를 없앤다. 또한 전후좌우로 던지며, 祭場을 정화시키고, 한쌍의 신칼을 던져 그 칼날의 방향으로 신의 뜻을 점치기도 한다.



<그림 14> 삼지창



<그림 15> 작도

### 4) 明圖

신의 거울(鏡)이라고도 하고 신의 얼굴(顔)이라고도 한다. 닳쇠로 둥근 모양에 뒷면에 칠성과

33) 任東權, 民俗上으로 본 色彩觀, 韓國民俗學論巧, 집문당, 1982, pp. 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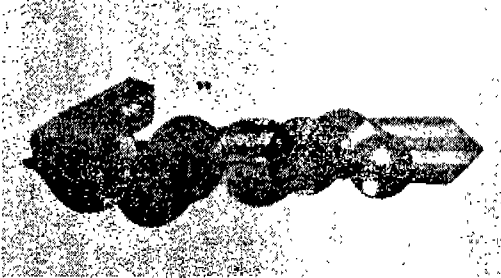
34) 조효순 전제서, pp. 344~352.

日月이 판각되어 있다. 크기가 각각 다르며 신당의 화상위에 칠성과 일월이 판각되어 있다. 크기가 각각 다르며 신당의 화상 위에 걸거나 籠의 위에 걸어 모신다. 곤울이라고도 하며 명두에 쌀을 붙여 짐을 치기도 한다.

5) 扇

무당의 제일가는 무구는 방울과 부채이다. 무당이 사용하는 부채는 단순히 예술적인 춤부채가 아니라, 惡精을 없애고 善神을 부채질하여 불러오는 神器이다. 보통 三佛扇을 쓰나 帝釋佛師巨里에는 白扇을 쓴다. 무속에서 불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入仙女扇, 日月扇, 花文扇 등 여러 가지 부채가 있다. 보통 부채의 끝에는 노란색 긴 천을 달아서 사용한다.

오방정색: 東(木:靑), 西(金:白), 南(火:赤), 北(水:黑), 中央(土:黃)



<그림 16> 명도



<그림 17> 선

6) 방 울

무당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한 神物로 방울은 무당의 守護神이며 그 흔적은 신의 목소리

로 생각한다. 방울소리에 의해 惡精이 물러나고 善神이 찾아온다고 한다. 무당의 신물로는 가장 오래된器物이다.

7) 五方色旗

오색 천을 깃대에 꽂아 쓰는 것으로 東方靑色, 南方赤色, 西方白色, 北方黑色, 中央黃色의 다섯 개로 갖추어 쓴다. 이는 오방위의 신장을 지휘하여 잡신과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으로 神將巨里에 사용한다.

IV. 結 論

1) 저고리와 치마는 모두 화려한 색이었고, 감응청배, 호구거리, 조상거리, 뒷전, 창부거리에서 착용했다

2) 佛師長衫(제석거리)은 백색이며 廣袖이고, 홍색 架沙를 걸치고 홍색대를 댔다.

3) 홍천릭(구룡)과 청천릭(대거리)이 착용되었다.

4) 具軍服을 착용했다.(전립, 전복)(별성거리), 둥다리(逐鬼)

5) 蒙豆里(만신말병)는 직령이며 광수의이고 백색동정과 홍대를 매고 있다.

6) 長衣는 감응청배에서 녹색장옷이며 쓰개로 사용하지않고 남자의 두루마기 처럼 착용하였다.

7) 衣는 연두색소창의(성조거리)를 입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무속복식은 음양오행사상에 근본을 둔 전통복식의 일부로서 기본형태나 착용방법 등이 전통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신의 강림이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관복은 권능(거의 전능)의 상징이었으므로 조선시대 관복이나 보다 더 화려한 색상과 모양의 복식을 택하였고 무당은 神의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각 거리마다 상징적인 神의 격에 합당한 복식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Apparels of Shamanism during Cho Sun Dynasty

1) The color of JOGORI and CHIMA was such gorgeous and those garments were *put on during the events of* GAM-EUNG-CHUNG-BAI, HO-GU-GEO-RI, JO-SANG-GEO-RI, DEWT-JUN and CHAN-BOO-GEO-RI.

2) BULSA-JANG-SAM(JE-SUK-GEO-RI) was white colored and had wide sleeves, putting on a pink priestrobe and a pink belt on it.

3) they put on HONG-CHUL-NIK (GU-REUNG) and CHONG-CHUL-NIK(DAE-GEO-RI).

4) They put on GOO-GUN-BOK (JUN-RIP, JUN-BOK(BYUL-SUNG-GEO-RI), DONG-DA-RI(Expel the demon).

5) MONG-DOO-RI(MAN-SIN-MAL-BYUNG)put on the garment constructed with the color and form of a white, straight collar, a wide sleeve and a pink belt.

6) A long robe was colored with green

(GAM-EUNG-CHUNG-BAI), and was used not as a headdress but as a man's overcoat.

7) CHANG-EUI was a green colored small CHAHG-EUI(SUNG-JO-GEO-RI).

As observed above, the Shaman apparel during Chosun Dynasty is a part of the traditional clothing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i.e.metal, wood, water, fire and earth).

It's basic form and wearing method were not so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lothing but it's color and shape were chiefly similar to the official uniform during Chosun Dynasty and the official uniform was the symbol of authority(almost almighty) at that time of period and to that the Shaman apparel was constructed with the more gorgeous colors to emphasize the sanctity or the descent of the Divine Being from Heaven.

We realized that a Shaman had put on the symbolic garment suitable for the grade and nature of the Divine Body at every events to enter into "The World of Gods."